



16일 광주·전남을 강타한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여수시 학동의 주택가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강풍에 날려 담장을 무너뜨리고 도로변으로 튕겨 나가 한때 주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여수=위직림기자 jrvi@kwangju.co.kr

태풍 '나리' 남부 강타

어제 고향 상륙...수확기 농작물 큰 피해

16일 오후부터 제11호 태풍 '나리'가 광주·전남지역을 통과하면서 선박 침몰과 농경지 침수, 가옥과 시설물 파손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7면>
강풍과 장대비를 동반한 이번 태풍은 벼와 밭작물 등 수확기를 앞둔 농경지를 휩쓸고 지나가 정확한 피해 집계는 나올 경우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16일 오후 6시 현재 도내에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호우에 이어 이번 태풍으로 사망 2명, 실종 2명, 17억2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도로가 침수당하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태풍 '나리'가 북상하면서 여수·완도 지역 1만여 가구가 한동안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여수공항과 목포·여수여객선터미널을 오가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으며, 도내 주요 항·포구에는 선박 수만 척이 대피했다.

제주에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제주시 용담2동 용운로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할머니가 빗물에 떠내려 오는 것을 주민들이 인양했으나

이미 숨져 인근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 오라동사무소 인근 한천 종류에서 남자 1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태풍 나리는 16일 오후 고향·여수를 거쳐 밤 9시경 밀양 서쪽 약 90km 부근 육상, 17일 오전 3시경 안동 북북동쪽 약 20km 부근 육상 등을 통과하면서 중심기압은 980.3hPa에서 990.23hPa로, 최대풍속은 시속 108km에서 시속 83km로 점차 약화됐다. 나리는 17일 오후 3시경 세력이 미약해 오가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으며, 도내 주요 항·포구에는 선박 수만 척이 대피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근 3~4년동안 특별한 태풍 피해가 없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

신정아씨 귀국...檢 소환

변양군 前실장도 출두...장운스님 中출국 저지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6일 오후 변 전 실장과 이날 일본을 통해 귀국한 신씨를 곧바로 소환, 강도 높은 심문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3·11면>

학력위조 파문의 주인공인 신씨는 지난 7월 미국 잠적 이후 2개월만인 이날 오후 5시7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신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신씨는 곧바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변 전 실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검찰에 출두한 변 전 실장은 "신씨의 배우가 되지 않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괄 대답하지 않고 침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신씨를 대상으로 학력 사정·위조 경위, 2005년 동국대 교원임용, 스페인 아르코아트페어 주빈국 큐레이터 2006년 선임 및 사임 과정, 2007

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 올해 2월 이후 학력위조 사건 은폐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올해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펴고 있다.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다수 대기업의 후원이 쏟아진 데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변 전 실장이 후원의 대가로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 준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낸 대기업과 은행의 명단 및 액수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검찰 등을 통해 입수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곡미술관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12개 대기업 및 은행이 모두 8억5천여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청와대와 검찰 청사를 제외한 제3의 장소에서 양측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변 전 실장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줄곧 이 컴퓨터만 썼기 때문에 의외의 증거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씨 학력위조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가운데 한 명인 장운스님(전등사 주지)이 중국으로 출국하려 저지당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장운 스님은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웨이하이(威海)로 떠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지당했다. 장운 스님은 원래 이날 오후 웨이하이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839편에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정아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경선 광주·전남에 달렸다

제주·울산·강원·충북 함께 정동영 1위

지난 주말 제주·울산, 강원·충북지역에서 실시된 대통령민중신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정동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했다. 손학규 후보는 2위, 이해찬 후보가 3위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정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측 이후인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대통령 민중신당 경선의 흐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제주·울산, 16일 강원·

충북지역에서 각각 진행된 대통령 민중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총 1만3천910표(득표율 39.6%)를 확보, 중간 득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손학규 후보에 다소 밀릴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정 후보는 제주, 울산, 충북에서 1위를, 강원에서 2위를 차지했다.

대세를 내세우며 초반 4연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손학규 후보는 총 9천368표(26.7%)를 획득하며 2위에 머물러 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손 후보는 제주, 충북에서 2위를 차지했으

■신당 제주·울산·강원·충북 함께 정동영 1위

후보	득표수	득표율
정동영	1만3910표	39.6%
손학규	9368표	26.7%
이해찬	8925표	25.4%

며 강원에서는 3위, 울산에서는 총격의 골짜기를 기록했다.

친노 주자들의 후보단일화로 유력한 친노 후보로 남게 될 이해찬 후보는 총 8천925표(25.4%)로 3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강원에서 1위를, 충북·울산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제주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ur.ac.kr
진남과학대학
www.jn.ac.kr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황토기업
(주)한백 세븐 사시 출시!!
가볍게 주입식요! 이제 '사시'하면 한백 세븐 사시입니다.
신사발은...
대리점모집
HAN BAEK SEVEN SASH
062)380-8789